

녹색게릴라 자연미술사계절워크숍-2023 여름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UMMER**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Ppeoljis : Odd performence on the tidal flats

# 별짓 Ppeoljis



##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워크숍 2023-여름

Online 2023.8.15(화)-23(수)

Field 2023.2.15(화)

Venue 화성시 매향평화생태공원

Host 임승균

Special Program 임승균개인전-제1회 국제별짓경연대회

#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UMMER



녹색게릴라

강현아 Hyunah Kang  
권오열 Oyeol Kwon  
김순임 Soonim Kim  
박우찬 Uchan Park  
오혜린 Hyerin Oh  
이혜경 Hyekyung Lee  
임승균 Seungkyun Lim  
장 경 Kyoung Jang  
전원길 Wongil Jeon  
조재원 Jaeweon Cho  
최예문 Yemoon Choi  
최지은 Jieun Choi  
홍지희 Jihee Hong  
Carlosde Gredos / Spain  
Jahanbakhah Amirbeygi / Iran  
Sergi Quiñonero / Spain

## 녹색계릴라

녹색계릴라는 대안미술공간소나무가 주관하는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모임(지지워크숍)으로 자연미술워크숍, 전시, 출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한다.

우리가 즐겨 자연을 찾는 것은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공명하는 몸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싹 틔워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땅, 물, 빛,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모든 물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생각하고 반응한다.

자연의 생명력이 나의 무심한 발상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자연과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지'라 부른다. '지지'는 자연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소한 행위의 결과이며 놀라움이다. 자연에서 생겨난 '지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녹색계릴라는 지식의 횡포와 경쟁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자유 미술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갈 것이다. 자연 깊숙한 곳에서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이르는 녹색계릴라의 활동이 이 시대 예술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며, 땅의 지혜를 담은 '지지'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예술이 되길 소망한다.

## **Green Guerrilla**

Green Guerrilla is a Nature Art research group hosted by Art Space Sonahmoo. Green Guerrillas communicate through Four Season Nature Art workshops(gg Workshop), exhibitions, publishing residency programs.

The reason we often enter into nature is to revive the nature of the body that resonates with the flow of nature tha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feel the energy of the earth, water, light, and wind that spurts, grows, and bears grass and trees, and we listen to the sounds of living things and all objects between heaven and earth. We meet nature with empty hands and empty hearts, and think and react with nature to become one with nature with free gestures.

The moment nature's vitality strikes a harmonious balance with my humble idea, nature and art become one. We call this state the Green Guerrilla's 'gg'. 'gg' is the result and the surprise from small human actions in response to nature. The 'gg' created in nature disappears in time, but it seeps into people's minds through various forms of ex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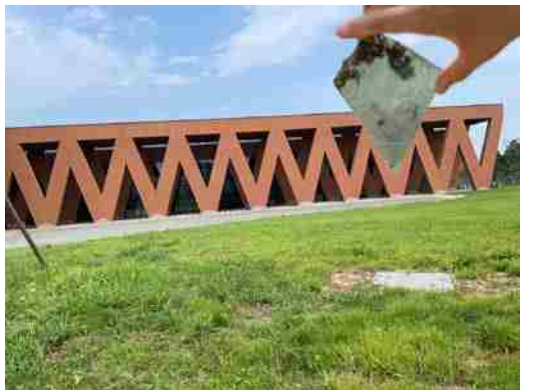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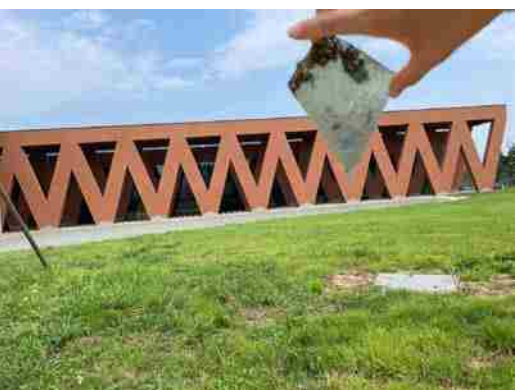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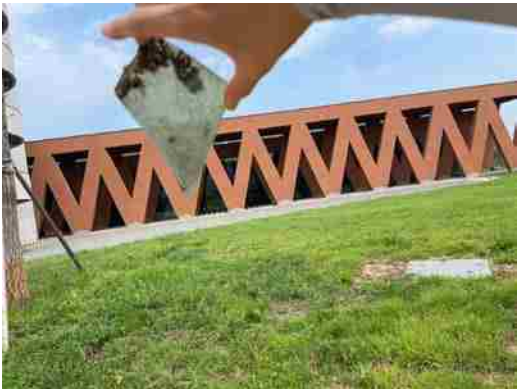
Green Guerrillas will free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knowledge and the oppression of competition and open up togeth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free art.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green guerrillas from the depths of nature to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 deliver a fresh energy to the art world of this time, and that 'gg', which contains the wisdom of the earth, becomes the art that lives with people.





강현아 Hyunah Kang









권오열 Oyeol Kwon



그림에도 불구하고 2319



만 개의 태양 2321



매향리 2320



매항리 2322

김순임 Soonim Kim



Saint - Maehyang-ri  
상처받고 버려진 타겟에 성인의 후광을 들풀로 만들어 주었다. 농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무심히 서 있는 모습이 매향리를 닮아 있다.





별 돌 1  
Tidal Stone 1  
싱글채널영상 1min. 57sec. 2023



별돌 2  
Tidal Stone 2  
싱글채널영상 3min. 30.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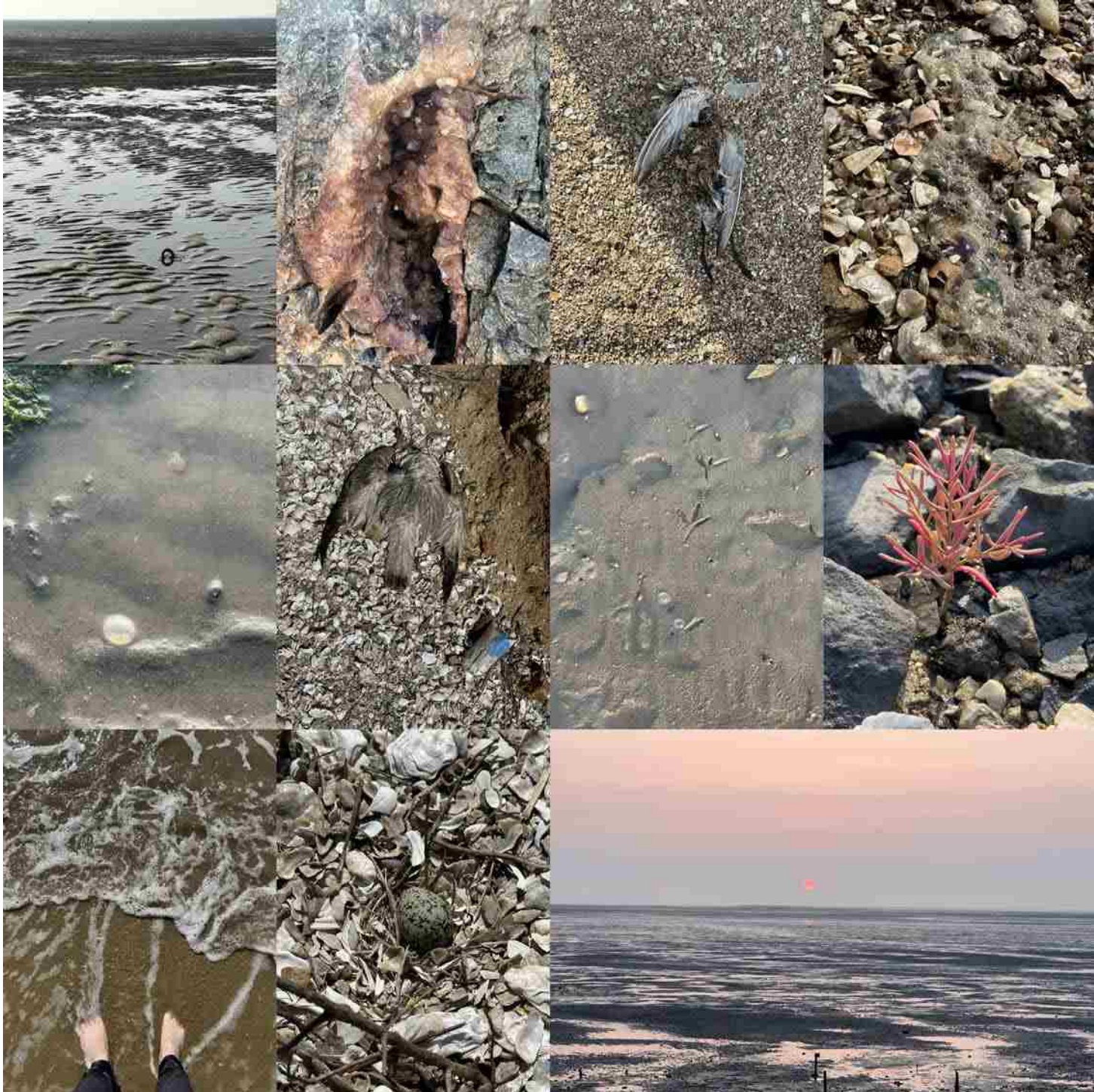
박우찬 Ucha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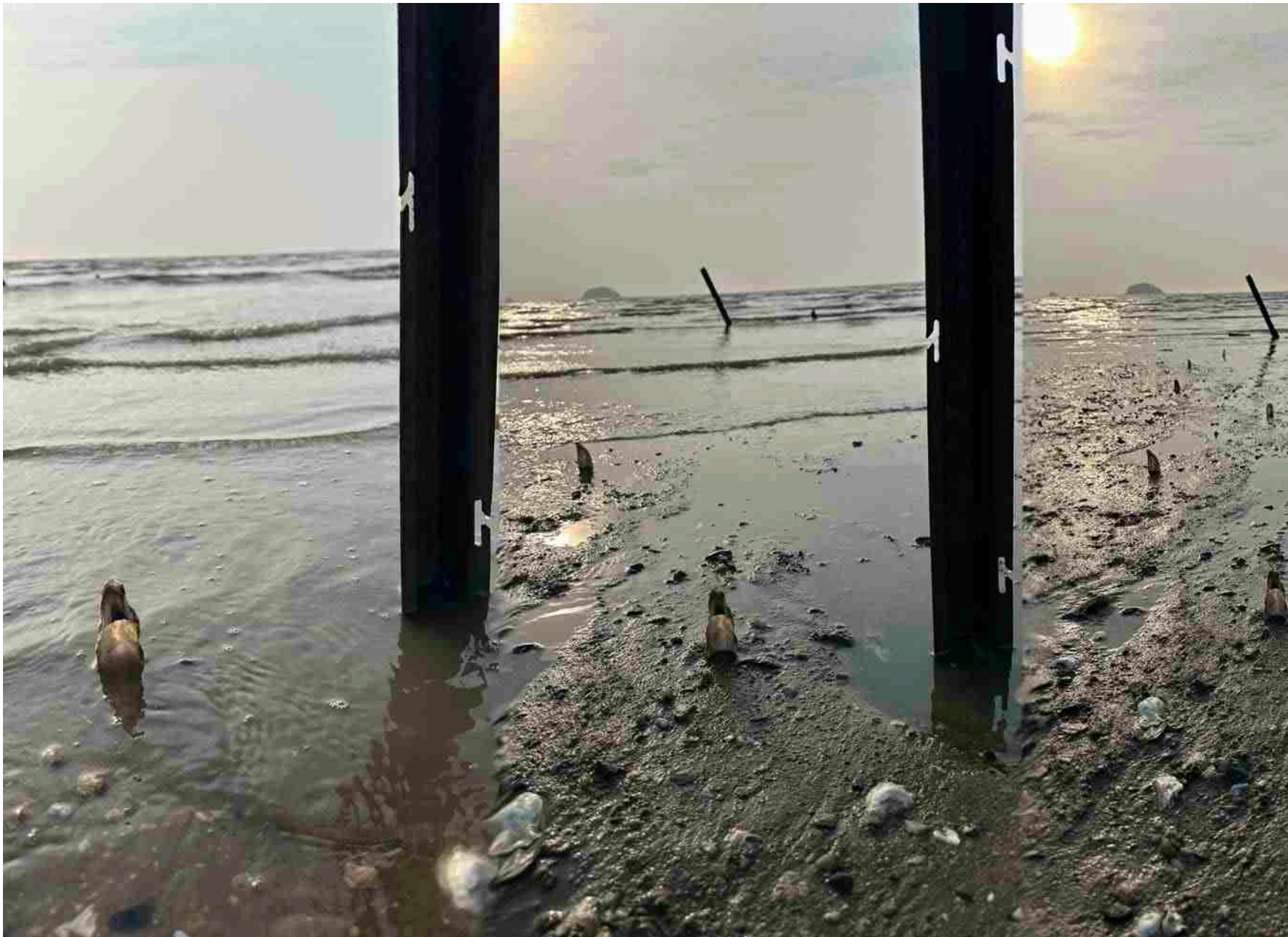


# 오혜린 Hyerin Oh

a drifting plumbing 2023 매항리\_ 사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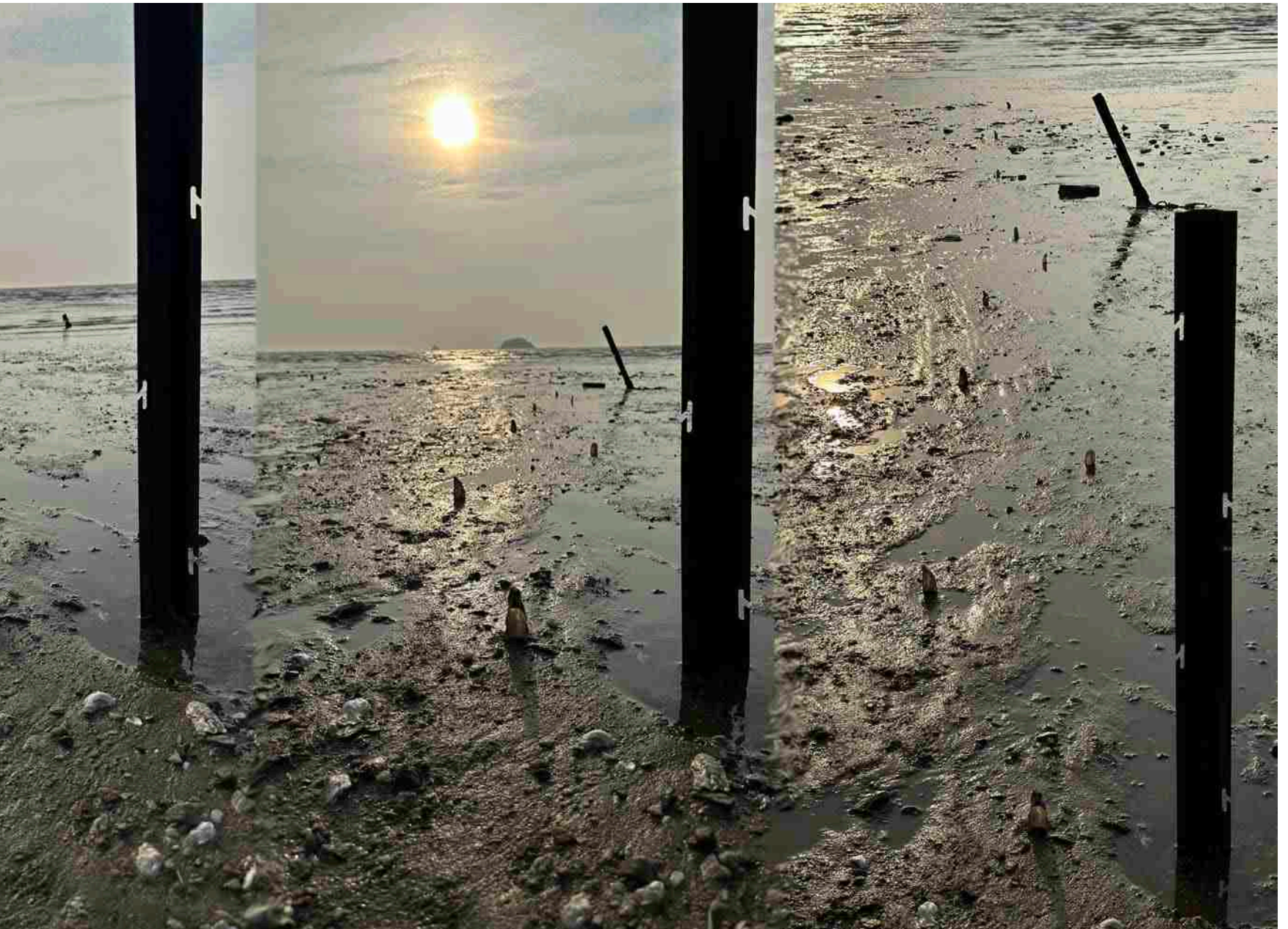
흐르는 물들은 어딘가로 흘러  
수도관을 만났다  
내 안에 있던 물이 어느새 바다로 흘러  
들어왔다 멀리 도망가는 바다가 되면  
미끌미끌 나팔고동의 먹이가 되어  
느릿느릿 갯벌을 기어다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거품이 되고 싶어  
따개비 옆에 잠시 붙어있다가  
다시 어딘가로 흘러  
수도관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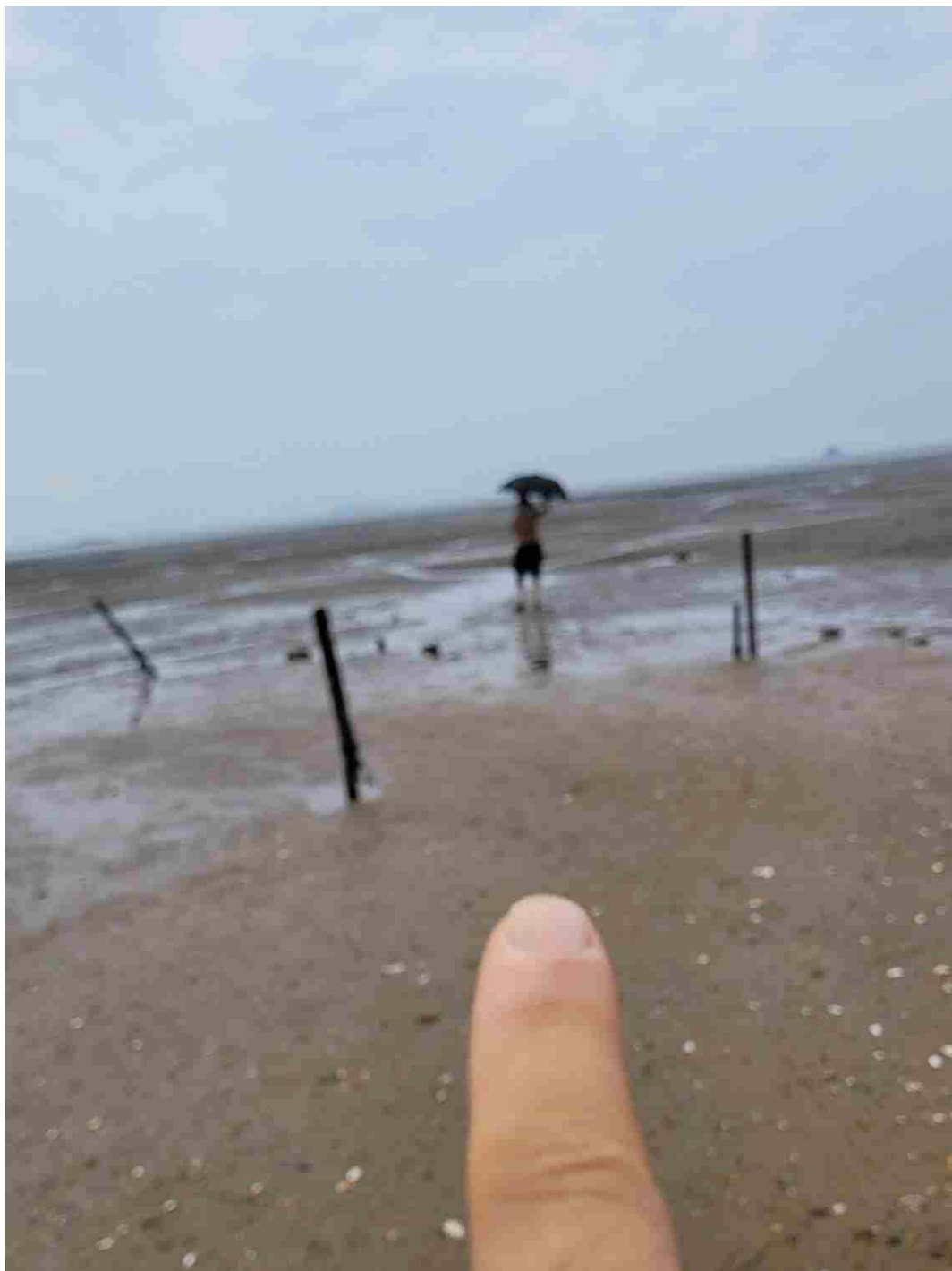
〈안녕, 안녕\_goodbye, hello〉, 2023, 빨짚\_매항리

돌아가는 바다에게 안녕,  
드러나는 갯벌에게 안녕.

안녕, 안녕  
Goodbye, and hello.











임승균 Seungkyun Lim

별구슬\_Tidal ball  
매항리 갯벌 채취. 2023



장 경 kyoung Jang



소리없는 비트에 맞춰 부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아는”

2023. 08.23 가림산 둘레길, 광명시

머칠째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  
때마침 창문을 두드리는 소낙비와 방안을  
가득 메운 타자치는 소리가 어쭙잖은  
비트로 느껴져서 두세 마디쯤의 가사를  
내뱉고는 일어나 산책을 떠났다.  
비트의 공명과 확산을 바랐다. 그래서  
비웃을 입었다. 땀과 비가 섞이는 조화를  
바랐다. 바람이 통하지도 않는 비닐 옷을  
입고서 잘도 그러길.  
이윽고 비가 잦아들어 비웃을 벗었다.  
이마 위에 다닥 하고 팔뚝 위에 다다닥  
하고 비트가 쏟아지며 흡수된다.  
아이참. 소리 없는 비트가 훨씬 좋구나.  
매개체를 쓸 것인가. 내가 매개체가 될  
것인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아는 나팔꽃보다 짧은 산책길에서  
우산을 집어던진 어느 이를 생각한다.

전원길 Wongil Jeon



매항리의 붉은 별, 20230815, 화성 매항리



무제, 영상, 3' 50"  
20230815, 화성 매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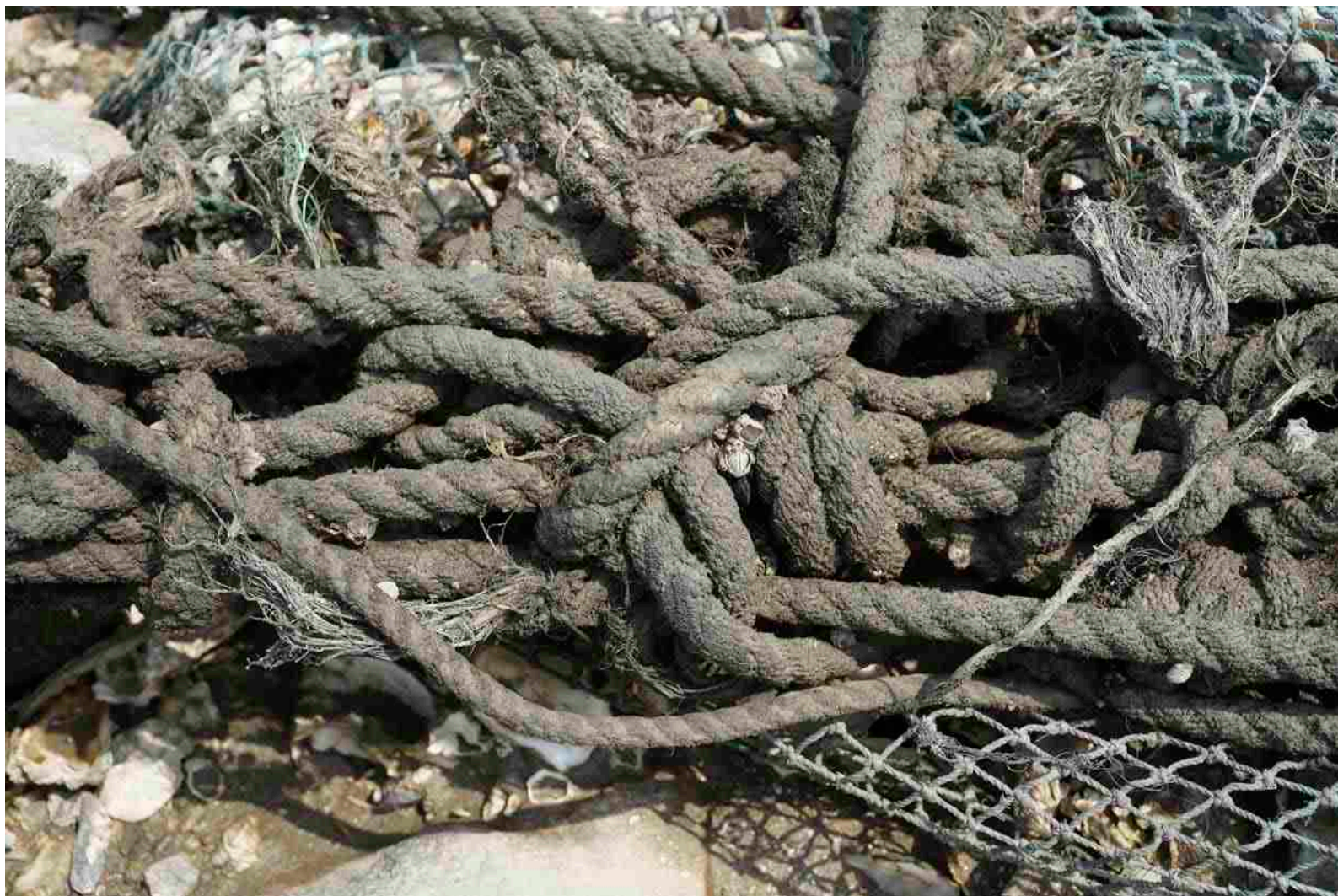




빛 The Light, 20230815, 화성 매향리

돌과 물 사이에서 반짝이는 가느다란 빛을 발견했다. 빛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시점을 맞추어 촬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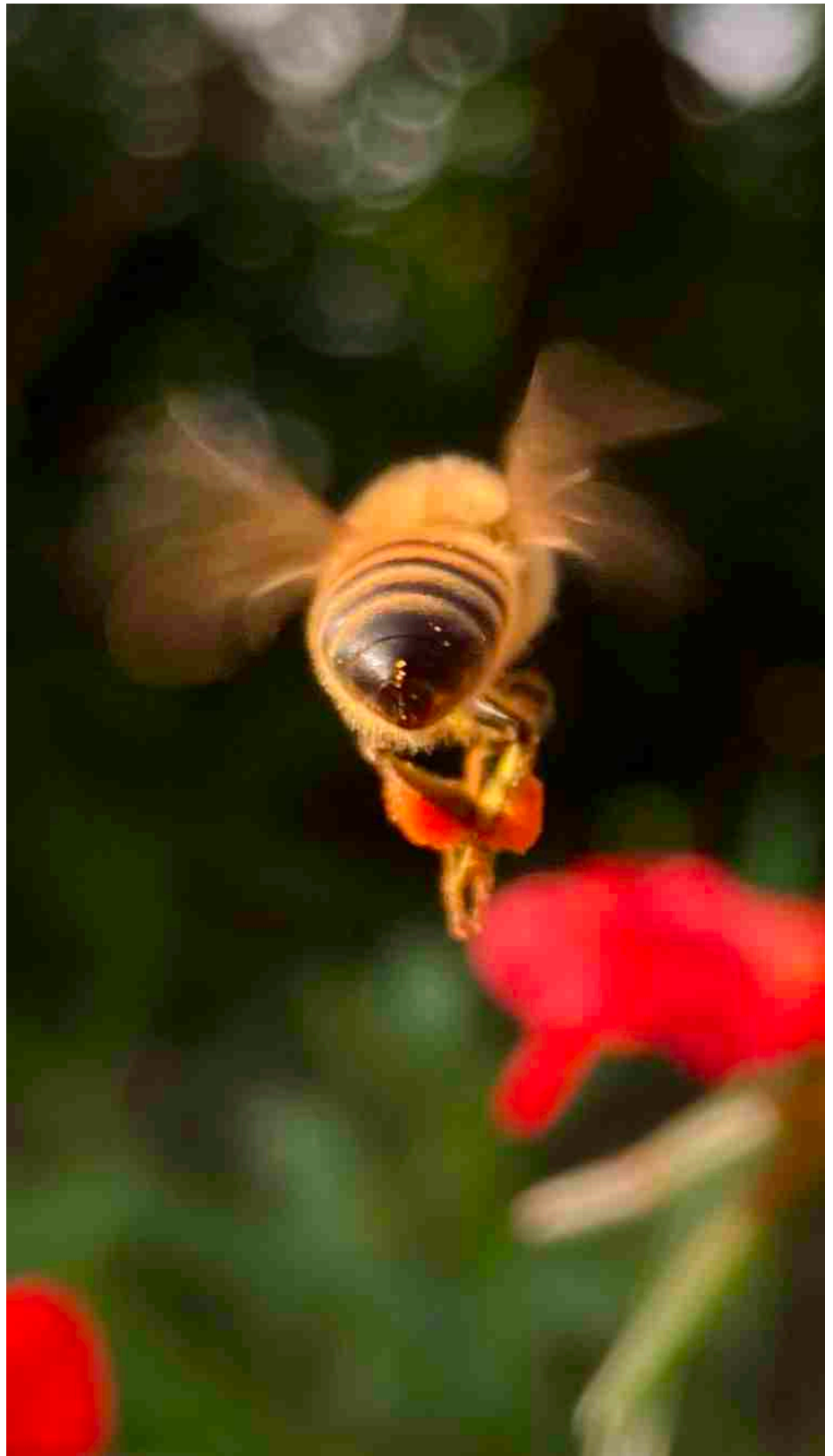
ㅂ



뱃 줄을 비비다, 20230815, 화성 매항리

뱃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흔적을 남겼다

조재원 Jaeweon Cho



조우, 2023



최예문 Yemoon Choi

깊은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바람 소리 크기의 상관관계 측정하기 Video & Sound 화성시 매항리 해변







최지은 Jieun Choi



**돌고 돌고 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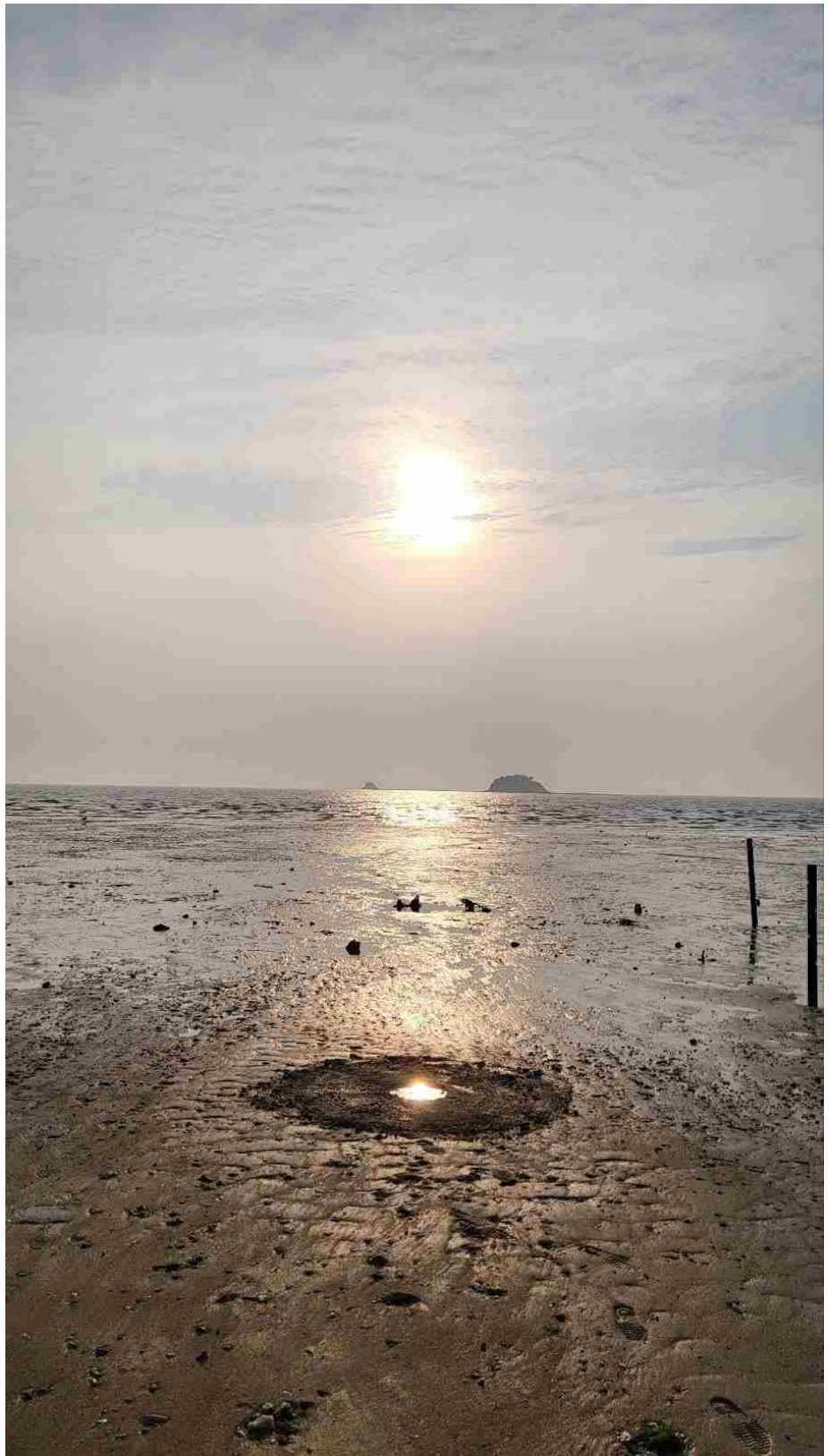
나도  
돌고

뒤섞인 마음도  
돌고 돌고

번뜩이는 세상도  
돌고 돌고 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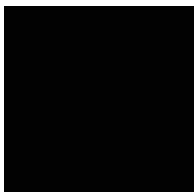
멈추지 않는다

해를 담아서  
'해를 담는 것= 별짓





함께 걷는 길



무겁고 거친 흔적이 여기 있다.  
밀물, 썰물이 거두어 가도 아직 있다.  
작은 존재의 보폭에 맞춰 그 위를 걷는다.  
가볍고 보드라운 흔적이 거친 흔적을 덮는다.  
작은 보폭의 속도로 소근소근. 하지만 아직 있다.



## 일곱층의 전망

우뚝 솟은 전망대는 섬세하게 분할되어 있었다.  
전망의 용도와 눈에 띄는 존재감 외엔 건물의 기능이 제거되어 있는  
이 전망대는 위에서는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아래에선 어디서든 이 존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전히 한 가지의 용도를 지니기엔 지나치게 커다랗기에 생소했고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1층에서 7층의 단계별 섬세한 조망이 가능하다.  
같은 것을 보지만 층별로 차이를 감각할 수 있는...  
층을 옮기는 행동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경험하는...  
나는 건물을 올려다보는 것으로만 피곤해져서 그만두었다.  
문득 미술이란 대중에게 이런 존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상이 내용을 담고 있어 눈으로 읽어야 할 때  
시간을 들여 곱씹으며 표면의 의미와 내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전망대는 이질감 없이 얼굴을 내밀겠지.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새로운 세상을 마음에 들이기엔 우리는 여유도 관심도 없다.



## Carlos de Gredos (Spain)



Water changes everything.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re. July 2



Nature makes us work to appreciate her value-1.  
Hoyocasero. July 5



Your hands are able to embrace all beauty.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re. July 2



My bed is under the roots.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re. July 25

## Jahanbakhah Amirbeygi (Iran)

Marking on the ground

Location: Hoz-e Soltan Salt Lake, Qom, Iran

Statement: Man moves on the earth and changes the movement of the earth to achieve his goals...





## Sergi Quiñonero (Spain)

“Austerity”

American cane leaves weaving dead stumps and cleared grasses

30 x 83 cm

The Marmellans

A work that talks about everyday actions aimed at survival, preparing firewood for heating in winter or maintaining the 25 m of fire safety around the house. Actions far removed from the consumerist lifestyle.





편집 후기

editorial review





##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워크숍-2023 여름

발행: 대안미술공간소나무

발행일: 2023.9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2023 Summer

Published : Art Space Sonahmoo

Date: 2023.9

©2023 Art Space Sonahmoo. All rights reserved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ummer**